


고	맙	습	니	다	!	참	부	모	님							
안	녕	하	세	요	~	지	금	은	성	화	어	린	이	이	지	만
좀	있	으	면	성	화	학	생	이	되	는	6	학	년	김	정	
아	임	니	다.	이	러	글	게	어	려	운	환	경	속	에	서	살
아	가	는	사	람	들	이	많	습	니	다.	집	이	없	고	못	
먹	고	형	제	가	족	이	없	는	사	람	하	지	만	저	는	
집	도	있	고	형	제	가	족	이	있	어	서	행	복	한	것	
감	습	니	다.	참	부	모	님	감	사	합	니	다	~	!	앞	으
로	모	든	성	화	어	린	이	학	생	모	두	다	지	켜	주	
시	고	건	강	하	세	요	사	랑	합	니	다	!	1	月	8	日


  
 금천교회
   
 김정아